

익산시, 중국 서안과 자매결연 추진

세계유산 정비·교류협력 방안 논의

세계유산도시 익산시가 중국 최대 역사 고도인 서안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3일부터 4일 간 중국 최고 고도인 서안시와 서안시 박물관, 섬서사범대학(중국 고도학회)을 방문해 양 도시에 산재해 있는 세계유산과 고도의 체계적인 정비와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섬서성에 위치한 서안시는 인구 1천만 명의 중국대륙 중심지로서 중국 고대 당나라와 한나라 등 13개 왕조 1,180여년의 수도로 로마와 아테네, 카이로 등과 함께 세계 4대 고도이며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서 동서양 문물교류의 중심지이자 현재는 유라시아 대륙

도의 거점도시이다.

익산시 대표단은 지난 14일 서안 시청을 방문해 마시량(馬希良) 당 상임위원 겸 수석 부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1차 협의를 가졌으며 자매결연의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서안의 대표 박물관 중 하나인 서안시 박물관을 방문해 판론허(范建) 당 서기의 환담을 갖고 익산과 서안의 박물관 간 상호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국립 익산박물관이 개관함에 따라 양 도시의 역사문물 교류전시와 왕도문화 비교연구 등 학술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다.

15일에는 섬서사범대학 중국고도



세계유산도시 익산시가 중국 최대 역사 고도인 서안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회를 방문해 양국 고도에 대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개최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방문은 백제왕도 익산의 세계유산과

중국 서안의 문화재 정책을 공유하고 한·중 양국 고도의 문화교류와 발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위해 추진됐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친환경 에너지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

제2산업단지 인근 냉각가스충전소 옆 내년 8월 완료 예정

익산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수소충전소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 및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의 서면심사 등을 거쳐 익산 제2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냉각가스충전소 옆을 수소충전소 설치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국비 1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해 내년 8월까지 수소충전소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1일 공급량 250kg, 1일 평균 충전대수는 50대, 충전시간은 승용차 기준 5분 정도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지역에 친환경 에너지인 차량용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라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라며 "수소차 보급 확산 및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난대응 모의훈련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5일 실시한 이날 훈련은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해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해 전국단위로 실시했다.

시는 매뉴얼에 따라 사전 준비단계로 관내 52개소의 공공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담당자 지정과 및 비상연락망 정비, 공공차량 현황 파악 등을 완료하고 위기경보 발령에 적극 대응했다.

훈련 전날인 14일 오후 5시경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고 훈련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3일간 지속(주의단계) 될 것을 가정해 실제 훈련으로 실시됐다.

이에 공용차량 전면 운행중단, 관공서 직원차량 2부제 시행(홀수날에는 차량 끝자리가 홀수차량 운행), 관공공사장 가동시간 단축 및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도로청소 강화, 살수차 운행 등이 시행됐다.

이를 위해 전 행정?공공기관에서는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청소, 지도단속용, 경찰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친환경차량, 영유아 동반차량, 임산부차량 등 차량2부제 적용 제외 차량과 및 비포 발급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훈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공부서가 협력체계를 이루어 체계적으로 훈련에 대응했다.

시는 세무서, 군산교육청 등 관내 52개소 공공기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비상먼지 발생사업장인 근급건설공사 및 대기배출사업장 현황을 방문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로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

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한해서만 포함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익산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835-811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 추진

올해 266동 총 10억2천만원 사업비 들여 정비... 내년에도 10동 추가 선정 계획

행복도시 군산시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지난해 12월말 9,000가구 대비 올해 10월말 9,735가구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에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86동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 가구를 대폭 늘려 266동을 선정해 총 10억2천

만원의 사업비를 지붕공사, 단열공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귀촌인, 마을활동가 등에게 5년간 무료 임대 및 문화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유입과 활기를 불어 넣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도 10동을 추가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화재나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시민을 위해 긴급주거시설(2동)을 확보해 신속한 재난 극복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며, 군산시 주거복지관련사업, 주거안정금융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한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책자를 제작해 읍면동에 비치했다.

또한, 다양한 주거복지관련사업·금융지원정보 등 윈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상담창구(군산 시청 열린민원과 32번 창구)'를 개설해 개인의 욕구에 맞춘 주거문제 상담·금융정보 제공과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신홍배수지 내부시설 보수 완료

익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 3억여원을 투입해 신홍배수지 내부시설 보수를 완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신홍, 금강, 팔봉, 금마, 왕궁 등 총 5개의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홍, 금강배수지는 자체정수장

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동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팔봉, 금마, 왕궁배수지는 광역상수도물 공급받아 일부 동지역 및 읍·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이 중 신홍배수지는 1974년부터 총 5개의 물탱크로 일일 약 5만톤의 수

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었으나 최근 정밀진단 결과 내부 벽의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시는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고강도 콘크리트 공법을 이용해 신홍배수지 내부시설을 완벽히 보수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시민감사관 소통간담회

군산시민들의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는 시민감사관이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민감사관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년 군산시 청렴시책을 공유하고 2020년 시민감사관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감사관은 평소 시민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고,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및 감사담당관의 역할 등을 안내하며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과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 시민감사관들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재차 강조했다.

진화형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은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 추진의 조력자이자 감시자로서 비위와 부조리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시민불편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이중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